
1996年度行政事務監査 內務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內務局

日時 1996年11月26日(火) 午前10時
場所 內務委員會會議室

(10時 45分 監査繼續)

○委員長 吳世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內務局에 대한 1996년도 行政事務監査를 계속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어제 委員님들의 질의에 대한 被監査機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內務局長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相鎭;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委員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답변드리지 못한 다섯 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보충질의를 해 주신 委員님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신청사건립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新廳舍企劃團長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崔光雄 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崔委員님께서서는 모두 35건의 서면질의 내용 중에서 6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저희 회의장에서 해 주셨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토록 말씀이 계셨으므로 질의해 주신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건물 내의 공조탑들을 청소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市廳舍의 대상시설과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도 8월 20일자로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되어서 연면적 5,000㎡ 이상의 사무용 건물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청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금년에 됐습니다. 현재의 市廳舍는 5,000㎡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이 없겠습니다만 檢察廳, 大法院 廳舍 보수가 완료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 99년 이렇게 되어서 99년 안으로 점검을 하고 또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 안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청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지원 단체 중에서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자료를 잘 제출하는데 일반 지원한 단체에서는 자료 제출을 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서울市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실태를 보면 활동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실제로 뛰는 활동에 치중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무계획 수립이라든지 뒤에 있는 사무체제는 조금 미흡한 실정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市에서도 활동실적 등 자료 수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단체에 채근도 하고 현지출장도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단체가 12월에 종합실적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앞으로 자

료제출이 잘 되게끔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技能職公務員의 승진이 일반직에 비해서 좀 늦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技能職公務員의 승진이 一般職公務員에 비해서 늦어지는 이유는 첫째는, 技能職公務員은 업무성격상 단순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직으로서 직제상 정원이 5급 이상의 관리직이 없습니다. 6등급 이하 하위직도 현장근무가 주로 되기 때문에 하위등급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서 승진요인이 일반직에 비해서 적고 승진도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技能職公務員에 대해서 등급정원의 조정을 통해서 약간 상위등급의 인원을 조금 더 늘리도록 이렇게 해서 一般職과 승진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또 技能職公務員도 정기적인 승진예고제 같은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승진기간 같은 것을 정해서 예측가능한 인사를 해서 사기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도문서고의 係長 以下 직원들이 그런 어려운 근무여건과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격려 말씀도 주시고, 이 직원들에 대해서 표창이라든지 외국시찰, 또 기술습득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도문서고가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격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연말 표창에 대통령 표창으로 수여키로 審査委員會에서 결정된 바 있고, 앞으

로 외국 나가는 케이스 이런 데도 일단 빠뜨리지 않고 같이 포함해서 심사를 해서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95년도 민선이후에 技能職公務員의 공무 국외 실적 이 37명인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6명뿐이고 나머지는 어떤 윗사람들이 가는데 수행에 불과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위직, 기능직의 국외여행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공무 국외여행은 부서별로 실무 공무원 중심으로 실시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96년도 9월말 현재 총 여행자가 2,623명인데 이 중에서 72.7%인 1,906명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도 전체적으로 하위직 실무직원들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직에 대해서도 더 많은 해외 체험기회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內務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외국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機關長이라든지 部署長이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 신청된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3개월은 각 部署長들이 技能職이나 下位職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신청하도록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간부회의라든지 기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면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95년 11월 이후에 內務局에 대기중인 이사관 4명이 정년퇴직할 공무원으로 해외연수가 낭비가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內務局에 대기했던 이 분들은 공로연수가 6개월 전에 실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직위에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

단 內務局으로 대기발령을 해서 공로연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속이 內務局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유동주씨는 금년말 정년퇴직자인데 지금 현재 市 公務員教育院에서 특별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분이 전에 市立大學에도 출장을 해서, 그런 학구적인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퇴직 후에도 이런 시정발전을 위해서 공헌할 것으로 일반적인 그런 저기로 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직원인데 지난번에 세계회의에 초청장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委員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년을 얼마 안 두고서 두세 번의, 정확히 세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간 것이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른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市議會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컴퓨터를 구매해서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컴퓨터의 구매 및 설치는 本廳과 3급 이하 事業所는 電算情報擔當官室에서 취급하고 있고, 市議會는 議會事務處의 議案擔當官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議案擔當官室에 확인을 해봤더니 금년도에 팬티엄 컴퓨터 51대를 이미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초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서소문별관 議員研究室에 컴퓨터 25대를 구입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議案擔當官室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교부금이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보통교부금의 부과금적 성격을 가지며, 민선체제 이후에 순전히 표를 의식해서 의연히 집행해야 할 행정력을 느

순하게 쏟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서울시의 재원조정권한에 의한 조정력을 강화해서 특별교부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특별교부금 운영의 중점은 자치구의 자체 재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구청사 영선사업이라든지 대규모 도로 투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간에 특별교부금 중 일부는 그야말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보통교부금의 부과금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區廳의 재정력의 어떤 한계와 취약성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해소하려면 區廳의 재정력 격차가 해소가 되어야 되는, 재정력이 취약한 區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한 이런 것은 불식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 재정력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목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內務部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와 병행해서 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취지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면서 전반적으로 구청 재정력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민선체제 출범 이후에 區廳長의 취임에 따라 느슨해지고 있는 어떤 단속규제업무라든지 또는 市 위임사무의 수행 실적 저하 등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市에서 조정력이 강화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市區間에 협조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97년도의 경우에 종전방식에 의한 배분액을 최소화하면서 특별교부금 총액을 지금 1,000억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500억원은 자치구 필요사업으로 우선 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0억원에 대해서는 市區間의 협조관계라든지, 기타 특별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심사를 보다 강화해서 배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겸해서 지금 저희가 행정실적심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선의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특별교부금을 과연 그런 행정실적심사의 우열에 따라서 이것을 차등을 두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데 그러나 이 문제도 일단 한 번 고려해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선의의 경쟁력 유도를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의 복무시간은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에 규정된 자치법규 사항으로써 근무시간을 조정하려면 市議會의 사전 승인을 통한 조례개정을 하여야 하는데 토요일 일근무제와 출퇴근시차제를 조례개정 없이 실시해서 조례를 위반을 하였는데 조례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토요일일근무제와 출퇴근시차제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요일일근무제는 總務處에서 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에 규정된 근무시간 등의 변경조항을 적용해서 실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市에서도 總務處의 토요일일근무제 실시 근거와 같은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服務條例 제7조 市長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했었는데 조항이야 어찌됐든간에 최소한도 우리 內務委員會에라도 사전에 보고가 되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또한 이 토요일일근무제하고 시차제를 또 이렇게 할 때에는 總務處에서도 공무원복무규정을 지금 정식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완전히 픽스를 한다면 그 규정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 아마 總務處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나라 전체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조항과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總務處와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이것을 추이를 봐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속초 공무원 수련원의 객실면적이 너무 협소한 것 같은데 부지면적이 넓으니 앞으로 증축할 때는 객실면적을 크게 시공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건립하고 있는 이 수련원의 객실 규모가 지금 91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숫자가 本廳, 事業所만도 1만 7,000명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정된 시설을 보다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룸제를 해서 좀 그래도 한 100실 가까운 규모로 그렇게 하려던 계획 하에서 좀 적은데 앞으로 그 옆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1만 7,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이렇게 이용하려면 90실 갖고는 턱도 없이 좀 많이 부족되기 때문에 앞으로 증축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

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병행해서 만약에 증축이 된다면 委員님 의견을 참고해서 객실 면적을 조금 더 넓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金種求 委員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방문 기념품 판매액이 저조한데 이는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와 또 市 산하기관도 판매망을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기념물 판매 장소는 어디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市에서는 지난번에 CI, 엠블럼, 로고를 작성을 하면서 市廳에 오는 분들한테 기념적인 그런 물건을 뭐 좀 해서 이렇게 좀 판매하면서 서비스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로 해서 지난 10월에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홍보도 좀 미흡하고, 또 10월에 하다 보니 판매 실적도 적은 그런 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것은 市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파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제작사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오면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 가지고 판매된 것 중에서 일부 %로 해서 일단 떼고 나머지는 판매대금은 회사로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소는 만남의 뜰, 시정정보센터, 연금판매 매장 등 3개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것이 두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판매장소를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렇게 확대할 용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적으로 조금 더 두고서 이것에 대한 어떤 운영실적을 분석을 해 가지고 추후에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직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시다. 앞으로 좀 홍보 및 판매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

것이 뭐 좀 좋은 그런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용차량의 주유카드제 실시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5월 1일부터 이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전에는 주유를 할 때 이만한 조그마한 유류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운전기사들한테 쥐 가지고 어떤 주유소에 이렇게 가서 그냥 티켓을 내면 기름을 넣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티켓이 일종의 유가증권 같이 돼 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기름을 넣지 않고 예를 들어서 티켓을 주고서 현찰로도 받을 수 있는 부조리 요인이 이렇게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완전히 전자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자동차 번호까지 넣어서 기름을 넣을 때 딱 그냥 입력을 시키면 거기서 영수증도 나오면서 그것이 전송으로 돼 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이렇게 돼 가지고 완전히 저희 개선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류사용량이 95년도 5월부터 95년 9월까지 6달 동안 사용한 것이 14만 8,930L였는데 금년도에 이 제도를 사용한 후로 한 2만 9,000L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이 면을 좀더 살려 가지고 앞으로 더 다른 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內務局 산하 委員會 중에서 민간인이 委員長으로 있는 委員會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內務局에는 13개 委員會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이 委員長으로 있는 委員會는 3개 委員會가 있습니다. 신청사건 립추진위원회는 권이혁 학술원원장이 委員長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시민상, 공무원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작년도 시민대상을 탔던 윤주홍의원이 委員長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서울시민대상운영위원회는 김영상 향토사학회장이 委員長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金種求 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金在仁 委員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市 소유 관용차량의 유류지급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드로 하고 있는데 市 간부급이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과 간부 개인용 차량의 주유는 市에서 하고 있는지, 개인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市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134대입니다. 이 가운데서 交通管理室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차량 20대와 견인차량 23대 그러니까 43대를 제외한 91대를 總務課에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市 간부 개인차량에 대해서는 주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시다만 교통비가 간부들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개인차량에 대해서는 기름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市長의 인사권 범위에 대해서 自治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지, 아니면 區廳長 내신 또는 협의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선 이후에 基礎自治團體長의 임용권이 독립되어 있으나 委員님 말씀대로 최소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市長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데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地方自治法 附則에 국가직인 副區廳長은 區廳長의 제청을 받아서 內務部長官에게 다시 제청을 하고 內務部長官

이 이제 또 大統領께 올려 가지고 大統領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地方公務員法 제6조에 의해서 區廳長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4급 공무원의 인사권은 區廳長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에서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4급 공무원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전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될 때는 區廳長이 동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좀 불편한 좀 이런 어떤 모순점이랄까, 이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區廳長이 진출내신을 하거나 인사교류를 市長에게 예를 들어서 해 달라고 위임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4급공무원에 대한 市區間, 자치구 상호교류 실시를 이제까지는 하고 있었는데 몇몇 區廳에서는 또 독립을 하겠다는 이런 또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區廳長協議會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하여간 인사 문제를 풀어 나가고,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한번 內務部에다가 최소한도 4급 이상 인사권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에게 이렇게 주는 방향으로 좀 개선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알선 기관은 어디이며, 대부이자 등 상환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은 상업은행에서 시직원에게 2백만원에서 5백만원 범위 내에서 연12.5%의 금리를 적용 대부하고 상환은 3년 내지 5년 기간별로 대부익월부터 균등분할 납부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환 조건은 공무원 본인과 상업은행과의 약관에 따라서 일반대출과 같이 대부하고

있으며 퇴직시에는 퇴직연금 신청시 해당 부서에서 대부받은 사람인 것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수령 이전에 그 빌려간 돈이 상환이 완료돼야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때일 염려는 없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市에서는 저희 시직원임을 확인해 가지고 상업은행에 이렇게 보내면 상업은행에서 대부의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사항이고, 무슨 상환액에 대해서 뭐 이런 금전적인 문제는 제도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鄭海純 委員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소문 별관 市議會 청사는 12월말까지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소문 별관 내 구대법원 제2신관이 우리 議會에서 들어가실 그런 건물인데요 2,324평입니다. 보수공사는 議會事務處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 보고자료에는 빠졌던 점이기에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을 말씀드리면, 내부 칸막이 및 바닥재 설치 등 마감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정으로 보면 한 80% 정도인데 建設安全管理本部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년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민의 날 행사시 애국가, 시장 대화사 중에서 자치구 응원연습을 하는 등 통제가 미약했으므로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시에 각 자치구의 통제를 위한 통제직원 고정배치, 통제깃발 사용, 통신장비 사용, 전원차단 등 적극적

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 통제수단을 강구해야 했는데 개최식 중에서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었고, 또 중간에 21세기 열린 서울 대장정이라는 아주 이벤트적인, 그때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서 반성을 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비망록에 그것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통제가 조금 저기했던 것은 방송국하고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방송국의 방송될 시간 하고 딱 타임을 맞추다 보니까 전원 스위치를 방송말고는 전부 내리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시민의 날 이것이 상당히 처음 있는 뜻깊은 행사였는데, 전반적으로는 처음 있는 행사로서는 의미가 있었다는 이런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지금 委員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자체 분석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던 사항을 잘 보완을 해서 다음번 그런 뜻깊은 행사에서는 잘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또 근거가 없다면 관련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올린 바와 같이 올해 처음으로 시민단체 활동 지원사업을 오픈시스템으로 처음으로 공개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써는 地方財政法 제 14조와 施行令 제 24조에 보면 地方自治團體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는 이 규정하고, 그 다음에 施行令 제 24조제 3항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여 이를

근거로 제정된 서울特別市補助金管理條例가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시행은 市에서 시장방침을 득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해 보니까 7억원 정도로 해서 너무 금액이 미미해서 반납하는 이런 단체도 있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것을 보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단체 지원이 아주 효율성 있게 진행이 되도록 하면서, 또 지원되는 규모라든지 지원된 다음의 사후관리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초 內務委員會 會議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內務局은 시정의 기간조직으로서 인사, 사회지도 업무 등 지원부서 역할을 잘 해야 하고, 또 성실히 근무하고 노력하는 공무원을 희망부서에 배치하는 등 인사업무를 통하여 공무원 비리를 예방해야 하며, 또 內務局長은 모든 인사업무를 담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책임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비리사건과 관련 상위직 공무원에 대한 엄중경고 등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鄭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內務局이 市의 중추적인 지원부서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정발전을 잘 해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면서,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비리도 예방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도 뜻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인사에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계획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內務局長으로서 市에서 가장 직원들의 인사문제로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 그러면 첫째는, 직원들이 선호부서로, 어떤 선호부서라는 것이 직원들이 대개 생각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다는 것, 또 비선호 부서가 있다는 것, 또 격무부서와 비 격무부서가 있다는 것, 이권부서와 기획부서가 있다는 이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市는 똑같은 조직이고 부서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이런 이론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가 조직이라든지 부서를 실질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직원들을 순환보직이라든지, 예고보직제를 해서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리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일단 실무적으로는 한번 전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인사과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管理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외국유학을 갖다 와서 어느 전공이 있다면 그 전공도 살리고, 어떤 교육을 갖다 왔다면 교육과 연관되는 부서라든지, 또는 어떤 한 자리에 장기적으로 너무 오래 있는다든지 하는 부조리 요인이라든지 또는 효율적인 행정능률을 위해서 일단 분석해서 안을 만들어 보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비리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1차적으로는 물론 인사가 중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예방감사 기능이 강조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한 인사로서 처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같이 겸해서 복합적으로 하여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기일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추가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니다.

먼저 金鍾來 委員님이.....

○委員長 吳世根; 鄭海純 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海純 委員; 추가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한데요, 핵심을 피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도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 전에 민방공 경보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第1副市長을 경고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발령문제가 우리 市의 고유적인 업무도 아니고 실은 따져놓고 보면 內務部에서 잘못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市長은 第1副市長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했는데 지금 交通管理室 비리관계, 하수관계 이런 등등의 대형사건이 상당히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구속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고조치 이상의 문책건의를 할 의향은 없는지 內務局長에 대한 의견을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회피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李相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민방공통제소의 行政1副市長 경고, 그 다음에 비리관련 이것에 대한 처리는 이것이 인사로써 內務局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민방공통제소 관계도 監査室에서 조사가 되어서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交通管理室이라든지 下水局의 비리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할 것이냐 경고를 하느냐 하는 것은 監査室 소관입니다.

監査室에서 방침이 나서 징계가 요구가 되면 그 징계위원회가 內務局 소관입니다. 징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중징계를 할

것이나, 경징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內務局에서 주관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후 하게 되어 있습니다.

○鄭海純 委員; 그렇기 때문에 監査室長한테도 내가 얘기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監査室에서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인사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청렴도 여러 가지 모든 면으로 봐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內務局長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內務局長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또는 監査室長 자신이 어떻게 당하는 것보다도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런 얘기 안했습니까? 市長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 두기 이전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이런 어떻게 그런 것은 못할 것이예요.

그러나 第1副市長은 징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응당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건의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監査室長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사 담당을 가지고 계시는 內務局長의 의견은 어떠냐 그래서 묻는 것이예요. 건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內務局長 李相鎭; 일단 조사가 되어서 저희 內務局으로 징계가 넘어왔을 때는 제가 1인사위원회에서는 委員으로 되어 있고, 2인사위원회에서는 제가 委員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쪽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냐 아니면 경고냐 처분에 대한 것을 보고올리는 그쪽에서 개진이 되지 않은 사항을 內務局長이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조금 자기 임무에 오버되는, 또 제 주어진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局長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內務局長이 이렇게 건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 입장으로는 일

단 결정이 되어서 넘어오면 그때 제가 제 소관으로 왔을 때 개진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金鍾來 委員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崔慶竣 下水局長을 96년 10월 30일 都市鐵道公社로 파견한 인사와 관련해서 10월 22일 龍山區廳 직원 2명이 검찰에 소환되고 앞서 수색영장까지 발부되었으며, 10월 25일에는 대부분의 신문에 보도되었음에도 장기근무로 인한 교체인사인 듯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서약과 관련해서 솔직히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선 崔慶竣 전 下水局長 인사발령 사유에 대해서 金委員님께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게끔 미진하게 답변드린 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답변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都市鐵道公社 技術理事로 파견 근무중이던 전 都市計劃局長 崔在範의 임기가 10월 30일자로 만료되어서 교체대상을 선발할 시점에 있었다는 것을 첫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번째는 崔慶竣 전 下水局長이 장기근무를 해서 일단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하수도관 공사와 관련해서 龍山區廳에서 물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신공법 시달을 下水局에서 이렇게 했고, 거기에 지도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이유로 해서 都市鐵道公社로 파견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崔慶竣 局長이 비리와 관련해서 된 것은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남는데 그것은 지도 감독상의 문제로서 그때 거론이 되었지 崔慶竣 개인이 금품을 수수하고 그 건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었다는 사항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검찰에 연행이 되어서 수사를 받고 보도가 됨으로

해서 아, 비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 그 전에는 어떤 감독적인 그런 문제로 알았지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11월 중순경에, 11월 10일경에 그 전에 벌써 열흘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리내용은 몰랐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金玉源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특채자 중에서 일반특채자가 43명이 있는데 일반특채자 현황과 일반특채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특채자 중에서 일반특채자는 정규직원을 특채한 것은 없습니다.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技能職公務員을 채용했는데요, 96년도의 43명에 대한 것을 보면 사역이 24명, 조무가 5명입니다. 조무 5명은 조무직과 사송직과 주차단속직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경비로서는 방호직이 14명 이렇게 있습니다.

특채사유는 地方公務員法 제27조제2항제6호에 의한 공개경쟁 시험에 의한 결원 충원이 곤란한 그런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자를 임용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기능직 중에서 방호직렬, 위생직렬 중 사역직류인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에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은 직무의 성격상 아침 새벽에 이렇게 출근을 하고 또는 야간 근무자가 많아서 사람이 비면 어느 일정기간을 비어 놓았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충원하고 이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비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비면 바로바로 이렇게 충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해서 특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채할 때도 이제 정식적으로 서류를 받아

가지고 방침을 내서 公務員教育院에다 보내면 公務員教育院에서 소정의 시험 절차, 여기에서 필기시험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정의 면접시험 뒤 이런 전형실에서 이렇게 시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신원조회를 하고 정식으로 신체검사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임용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임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世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新廳舍企劃團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來 委員; 아니 委員長님, 新廳舍企劃團長 앞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世根; 新廳舍企劃團長 앞에, 그래요 그러면 보충질의해 주세요

○金鍾來 委員; 네, 金鍾來 委員입니다.

어제 本委員이 前 下水局長 인사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답변과정에서 우리 內務局長님께서도 변명인지 또 답변하는 과정이 사실인지 제가 판가름하기 어렵게만 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下水局長 비리문제는 이번 10월에 처음부터 이뤄진 것이 아니라 금년 2월부터 하수업체 관련된 업자들이 下水局長室에 찾아와서 책상을 뒤엎고 집단적으로 난동을 부린 행태부터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후 監査室에서도 추후 예의 이런 사항을 지켜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監査室에서 市長한테 문건 내지 구두로 수차례 보고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자인 우리 內務局長님께서 아까 그런 사항을

몰라서 실질적으로 前 下水局長이 전보순환의 의미가 강하다라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또 이해가 가겠습니까? 설령 그에 대해서 일응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 지금 현재 下水局長이 전 근무지에서 4년간 오래 근무했고 또 崔 下水局長도 下水局長으로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전보순환의 의미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10월 30일 인사한 시점이 언론 보도에서, 또 검찰에서 손을 댄 이후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局長님의 그런 변명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비리와 감독 불철저에 의한 인사라고 봐야 온당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局長님 실질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內務局長 李相鎭; 아니 저 金委員님 그런데,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비리통보가 왔다든지, 또는 崔慶堉 그 局長이 비리가 있고 뭐 하다고 예를 들어서 신문에 보도가 됐다든지, 또는 監査室에서 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 내용이 內務局으로 이렇게 통보가 왔다든지 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그건 그렇습니다만 10월 30일부터 전보할 때까지 龍山區廳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그 사고가 터지고 그 공법을 龍山에 내려보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휘 감독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정도는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설령 만약의 경우에 혹시나 下水局에 무슨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아심이 서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통보 온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崔局長이 그 심사대상 중에서 제일 오래됐고 저쪽에 있는 崔局長은 들어와야 될 이런 순환전보의 필요성이 있었고 그 검토 과정에서 오래된 사람, 그리고 龍山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행정 지도적인 책임이 있는 崔局長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면으로 검토가 돼서 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金鍾來 委員; 후자의 인식이 지금 강하지요, 말씀한 과정 속에서.

○內務局長 李相鎭; 아니, 그런데 아무 통보가 온 것이 없습니다.

○金鍾來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제가 좀 어차피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추가해서 이 문제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委員長 吳世根; 金鍾來 委員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시고, 또 어제 질의하신 委員님이 계시니까 新廳舍企劃團長이 답변하고 그 다음부터 보충질의를 해 주세요. 團長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新廳舍企劃團長 秦哲薰; 新廳舍企劃團長 秦哲薰입니다.

신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崔光雄 委員님, 또 金永俊 委員님, 鄭海純 委員님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崔委員님께서서는 기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으셔서 가지고 각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조사했는데 그 자료를 활용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주신 委員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金永俊 委員님께서서는 신청사부지 선정 문제는 정치적 센스를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이나 또 여러 가지 전술전략적 측면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평소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金委員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입지분석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5일 世宗文化會館에서 설명회를 한 바도 있었고, 앞으로의 계획은 서울시의 2011년 도시기본계획이 도시를 저희가 운영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송부해 드린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그리고 지금까지 즉 7월부터 각계 자문을 받은 사항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조속히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지금 현장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면 현장답사가 끝나게 됩니다, 4개 분과가. 그래서 시자체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저희 일정으로는 다음달 중순까지는 부지를 선정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專門委員室과 협조해서 內務委員會 委員님께서도 신청사 부지 4곳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장답사를 하고 또 현장에서 저희가 입지 여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俊 委員; 저 委員長님, 다음달 중순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달 중순경이면 서울시에 소위 1급, 2급, 3급 정도의 대 인사이동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딱 인사이동 끝나고 바로 그 이튿날 때려버려. 그래야 효과적이야. 밤새려면 골치 아프신데 그렇게 해 보면 금년 96년도 잘 넘어갈 것 같아요.

○新廳舍企劃團長 秦哲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鄭海純 委員님께서 높은 공직경력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먼저 연구기관의 입지 여건 분석자료에 경인운하라든지 영종도 고속도로라든지 장기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고 國會議事堂도 현재 시설도 부족하므로 국회 이전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용산 미군부대라든지

이런 데로 다른 데로 옮기는 계획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보는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부지에 대해서는 委員님들도 아시다시피 용산지역 군용지는 전체 부지 이전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저희가 國防部하고 접촉한 결과 일부 해제는 현 시점에서 이제 어렵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용산부지는 공식적으로 제외했다고만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검토 대상 후보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무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저희가 공식발표할 때까지는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즉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보면 어느 후보지든지 100% 장점만 가진 부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점이 없는 곳은 찾을 수가 없다고 보지만 다만 어떤 부지가 결정되든지 도시기반시설 보완 등 반드시 그 후속조치를 뒤따라 가지고 정비된 지역이면 정비된 지역으로 더 보강할 것이고 낙후된 지역은 낙후된 지역대로 더 뺏어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汝矣島 부지 입지 분석 내용 중에 국회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市廳과 市議會, 國會가 같은 근거리에 위치할 때에 기관간의 위상이 어떠냐라는 그 문제하고 또 지역간 균형 발전을 고려할 때 기관의 집중 문제는 어떤가 하는 그런 서울시의 고민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시 공간구조를 보면 사대문 내에 종합청사가 있고, 여의도에 국회가 있고, 서초동에 법조단지가 있고

이렇게 삼각축을 이루어서 국가기관들이 잘 배치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와 서울시議會의 기능이 국가기관이 있는 기능에 더 중첩시키느냐 또 다른 곳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또 별도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도 강조하셨지만 국회의 용산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市나 우리議會 차원에서 추진할 문제인가는 더 委員님들끼리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할 이것은 정부나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떤 고도의 정치적 결단도 따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서市 입장을 단정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명문화하기는 참 어렵다고 보고 용산의 국회 이전 문제는 장기구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저희가 都市計劃局長한테 委員님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世根; 수고하셨습니다.

內務局長 및 新廳舍企劃團長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십시오.

金種求 委員 질의하십시오.

○金種求 委員; 金種求 委員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습니다. 本委員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本會議에서 질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각 구에 이번에 방법대원 흡수로 인한 증원이 있었습니다. 각 구에 보면 동사무소에 한 명씩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區 課別로 배치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인력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각 구별로 약 4,50명씩 되지 않느냐 싶은데 지금 이 증원에 따라서 업무분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직원들이 혹시 불만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과 또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이들에 대한 증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內務局이기 때문에 직제업무 조정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民防衛災難管理局 비상정호수 관리 문제에 따른 얘기인데 지금 관련부서는 民防衛課 編成運營係입니다. 비상정호수의 목적은 유사시, 즉 전시나 단수시에 이것을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공급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비상정호수의 지금까지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공원이나 비상방공호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보면 市 내지 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현 상태로 오수, 폐수, 또는 작동불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民防衛局에 질의도 해보고 질문도 해 보지만 1년에 한 번, 두 번씩 가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녹슬어서 폐쇄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주민들이 어디 있는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설물 교체다 또는 사용불능으로 인해서 예산이 재투자가 되고, 또 홍보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모르고, 그렇다고 본다면 비상시에 비상정호수로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약 200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內務局長께서는 직제조정을 재분석을 해서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실질적으로 비상정수를 설치해서 평상시에 학생들이 사용도 해 보고 또 학생들로 인해서 주변의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약수로서 주민들도 비상시에 갖다 사용할 수도 있고 단수가 났을 때 학교로 가서 그 물을 평상시에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上水道事業本部에서 평소에 하고 있는 업무 중 수질검사랄지 시설점검이랄지, 그 분들은 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행정의 이중화, 또는 협의부서로서가 아니라 단일화,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연관해 볼 때 제가 봐서는 예산낭비, 인력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나라고 봐서는 上水道事業本部 施設課에서 관리하는 것이 나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결과를 本委員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新廳舍企劃團長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아까 휴게실에서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도심과 부도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심을 중심을 회피해서 부도심, 즉 4개의 광역으로 남부, 북부, 동부, 서부로 나누는 것을 부도심이라고 本委員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新廳舍가 부도심권이라는 기본틀에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서울 新廳舍만큼은 백년대계 이상을 내다 봤을 때, 통일 후를 내다 봤을 때, 또는 市에서 요구하는 교통분산정책, 또 그 지역에 어떤 新廳舍가 감으로써 지역적 개발에 의한 투자, 또는 지역주민에 대한 이익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볼 때 꼭 부도심이라는 틀에

이것을 넣어서만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제가 봐서는 언제나 행정하는 분들이 어떤 틀에서 못 벗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발상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몇 군데에 저희 同僚委員들도 여기에서 자기 지역 연고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입니다만 입지선정 문제로 몇 군데 지적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도심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汝矣島 같은 경우라고 하면 남부의 어떤 부도심 중심으로서 서부와 북부와 직결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경우에는 동부 중심지인 동부 부도심이라고 해 놓고서 어떻게 보면 저쪽 북부하고만 연결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汝矣島에 지금 1만평이 있고 광장이 몇 십만평이 있는데 지금 면적이 적다라고 아까 간담회 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서구 유럽도시 어디를 가보든지 다운타운 내에 있는 시티타운 이것은 면적도 넓고 정원도 조경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단 건물이 고딕건물로서 건물이 적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전되어 있는 데 보면 지금 신공법이 얼마나 건축법이 발달되어 있느냐 이것이에요. 설계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면적하고 큰, 물론 기본적인 면적은 중요시되겠지만 면적이 적어서 건물을 건축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개념도 어느 정도 탈피를 해야 된다. 왜 동경에 가서 동경시청을 가 보십시오. 그 건물 내에 얼마나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면적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고, 시간이 많이 연일 고생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그러한 의식과 개념을 다시 재고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根;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십시오.

崔光雄 委員 질의하십시오.

○崔光雄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서울신문과 관련해서 답변하는 중에 물론 公報官室 소관으로 있습니다만 자치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다만 5개 區가, 제 질의서에도 있습니다만 中區, 中浪, 陽川, 廣津, 東大門 이 5개 區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금액 나누기 12 나누기 95년 것은 6,000원, 96년 것은 7,000원 하면 한 달 부수가 나오는데 陽川, 廣津, 東大門은 부수 자체가 줄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中區하고 中浪은 월 부수가 4,50부씩 늘어났어요. 하나하나 답변 준비할 때 답변서 누가 작성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자료 좀 정확하게 챙겨서 답변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中區하고 中浪區에 대해서는 우리 公報官室에다 통보를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사업비 지원문제인데요, 12월 13일 世宗文化會館에서 발표회를 가지고 종합실적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內務局의 예비심사하고 곧 예결특위 열리는데 지금 예산안 확정인 12월 16일로 의사일정이 잡혀있는데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委員들

이 그 사업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평가를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54% 증액된 12억원으로 요구되어 있는데 잘 했으면 24억원 줄 수도 있고 잘못되었다라고 평가되면 줄일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行政事務監査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행정집행을 바로잡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심사하는데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 감사를 통해서 전혀 평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를 작성중이고 이런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 담당직원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화로라도 보고받은 내용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어떤가 하고 했던 내용들 이런 것 러프하게나마 조사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심사도 하고요, 참고할 수 있기 때문ですよ.

그리고 아까 局長님 말씀 중에 행정사무능력이 단체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문제를 삼았던 모 단체는 사무능력도 아주 우수하고, 아주 각종 세미나 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언론에 잘 나오기 위해서 보도자료 만드는 것도 보면 아주 잘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예요. 능력이 없는 단체들이라면 저도 양해를 하죠. 그런 점들을 지적했던 것이니까 그런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러프하게나마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地方財政法 제14조, 다음에 地方財政法施行令 제24조 제2항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작년 11월 30일 개정된 조항인데요, 금년에 지원된 사업들 즉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범죄예방 및 추방활동, 제가 이것 볼 때 이것은 경찰이 할 일이고, 학교폭력 예방이나 근절활동, 이것은 경찰하고 교육청이 할 일이고, 우범지역 순찰 역시 警察이 할 일이고, 방법순찰 역시 경찰 사무고, 그 다음에 약물남용과 예방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사무고, 명확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地方自治法에 보면 地方自治團體 사무예시가 즉 표로 거되어 있는데 거기 비춰서 우리 양심적으로 이번에 지원된 각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하나 하나 해당 우리 서울시 사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아울러 확실하게 해 가지고 다음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根; 보충질의하실 委員 더 안 계십니까?

金玉源 委員 질의하십시오.

○金玉源 委員; 네, 金玉源 委員입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 중에서 각종 용자금 현황과 회수실적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합니다.

현재 內務局에 요구하는 용자금 현황은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도시가스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이렇게 해서 용자를 해 주고 있는데 저소득층, 중소기업이 다 서민층이기 때문에 이런 용자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本委員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회수실적을 보니까 융자시기와 회수시기가 여기에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기별로, 한 가지 말하자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보면 금년에 나갔으니까 이것은 어느 기간이 있으니까 다음 다음연도에나 회수가 될 것으로 보는데 기타 융자기금은 전년도에 나갔다 그말입니다. 나갔으면 그 시기가 도래했는데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역에서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얘기합니다.

전세보증금, 예를 들면 이럴 때 各 洞에서 洞長을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유관단체 또 관변단체라고도 하지요. 이런 분들이 이런 자금이 내려오면 실제로 더 어려운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몇 사람들이 나누어 써요. 그것을 나누어 쓰고, 이것은 안 갚아도 된다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려운 시절에 예를 들면 나의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좀 얻어 쓰려고 洞에 가서 매달렸어요, 안줘요, 안줘. 급박하고 더 어려운데도, 보증을 서준다고 해도 안줘요, 이런 경향이 있었습시다.

그래서 시기가 됐는데도 회수가 안 되고 있고 또 그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적은 것이에요. 불과 이삼백만원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인데 그런 돈을 말하자면 쓰고 안 갚아도 된다.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여기에서 시기가 됐는데도 회수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해 주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어려운 사람한테 갔으면 모르는데 대개 유관단체장들이나 그 洞에 가면 여권에서 활동했던 이런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회수시기를 밝혀 주시

고, 안 했다 하면 회수할 수 있으니까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사람, 더 긴박한 이런 데에 용자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根; 金玉源 委員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지요?

○金玉源 委員; 네, 자료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吳世根; 좋습니다. 질의하실 委員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車星煥 委員 질의하십시오.

○車星煥 委員; 몸도 불편하신데 局長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서울시 행정에 市도 그렇지만 區 행정이나 洞 행정에 있어서 군살을 좀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의 군살을 빼서 필요한 부분에 넣어야 되겠다. 지금 각 區廳이나 洞事務所, 市廳, 本廳에 전산화가 계속되어가고 있고 또 관공서나 기업체 등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 등초본이랄까 인감이랄까 각종 재산관련 발급서류, 또 호적관련서류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무허가건물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반면에 시민들의 욕구 그런 것이 환경이나 교통분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목표도 교통이나 환경방향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자꾸 신규인원을 이렇게 공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있는 조직 중에서 이동을 시켜서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방면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 그리고 추진해 온 실적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슷한 영역에서 우리 서울시를 비롯 自治區 洞에 각종 직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능단체에 예산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행정적인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담당들이 있어서 각 회의 때마다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능단체의 담당별로 회의참석, 연락에서부터 안내장 발송, 또는 직접 회의에 참석하고 외부 행사까지 참석해서, 또 신규모집까지 또 일부 임원 선정문제까지 개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이러한 직능단체에 신경 쓸 그러한 시간을 행정에 좀더 집중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內務局 차원에서 자치구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과 지역유지들이 서로 의견 교환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너무 밀착되다 보면 부작용도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局長님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된 이후로 인사권이 自治區와 市間에 아직 불분명한 사례가 있고, 자치구에서 일부 많이 행사하는 관 계로 자치구청에서 승진한 후 그 자치구청에 다시 근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6급에서 5급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해 가지고 그 구청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區廳長들과 손발이 잘 맞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즉, 같은 동료직원이 갑자기 係長에서 課長으로, 또 課

長에서 局長으로 수직이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 장악력이나 협조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현저하다. 그리고 조직의 화합과 융화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새로운 인사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局長님 발언 도중에 있었던 이권부서와 기획부서를 좀더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서가 이권부서이고 어떤 부서가 기획부서인지. 그리고 격무부서와 비격무부서도 局長님께서 인지하신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요, 各 室, 局, 本部, 事業所別로 일정한 근무경험을 가졌던 직원들로 하여금 체험담 즉, 자기가 느꼈던 근무중의 애로사항, 또는 비리유발사항. 자기는 이겨냈지만 유혹에 넘어갈 뻔 했다, 예를 들면요. 그러한 사항들을 체험담을 받아서 室, 局, 本部나 事業所別로 체험담을 책으로 엮어서 새로 인사이동시 전보발령되어 온 직원들이 그 책을 봄으로 인해서 그 局의 업무를 빨리 숙지하고 또 비리유형에 빠져들지 않는 방지사항으로 책자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보급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성실하게 이러한 책자를 내고, 자기 체험담을 낸 사람들은 우선해서 표창을 주고 인사에도 반영하고, 이러한 정말 투명한 직원들이 監査室이나 內務局에 근무해서 市 전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局長님 답변시에 서울신문대 지급현황에 있어서 신문대가 올라서 그렇다는 답변이셨는데, 써준 대로 읽으시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부수를 높은 區廳도 있고 낮은 區廳도 있습니

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中浪區廳 같은 경우는 액수도 부수도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자치역량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中浪區廳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편차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표창과 구청장 표창이 보니까 어떤 區廳에서는 오히려 시장 표창이 區廳長 표창 보다 훨씬 많아요. 물론 권위를 따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鍾路區 같은 경우에 시장 표창은 48건인데 구청장 표창은 7건밖에 안돼요. 그리고 또 龍山區는 시장 표창이 44건인데 구청장 표창은 123건이고, 이러한 경우는 남발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城東區는 시장 표창 28건에 구청장 표창 21건, 廣津區는 시장 표창이 57건에 구청장 표창이 81건, 또 東大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시장 표창 32건에 구청장 표창은 제로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江北區는 시장 표창 54건에 구청장 표창 100건, 예를 들자면 이러한 사례들이 과연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표창이 정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이것은 地下鐵建設本部 사항입니다만 지난 토요일 8호선 개통식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內務局長님께서도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總務課長님, 人事課長님, 自治行政課長님 다 서명을 하셔서 가지고 개통식 행사를 가지셨는데, 松坡區 可樂洞에 소지한 가락시장역에 지하철 8호선 개통을 12월 23일 했는데 참석인원 총 500명에서 초청인사가 221명, 시민이 150명, 행사요원 129명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立法府 20명에

市議會 19명, 區議會까지 해서 區議會 議長도 왔고 城南市 議長도 왔습니다. 또 城南市 간부, 서울市 간부, 市民代表, 老人會長, 婦女會長, 地域 職能團體長, 松坡區 體育會 副會長 외 3명, 一般市民 150명, 기타 죽죽죽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이 분들 초청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地域區 市議員도 초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행사가 과연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의전이 맞는지, 의전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內務局長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것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根; 內務局長, 車星煥 委員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답변들을 수 있습니까?

○內務局長 李相鎭; 준비를 좀 하여야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世根; 준비를 하셔야죠?

다음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海純 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海純 委員; 鄭海純 委員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內務局長님 답변에 第1副市長 경고 문제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관장 취급업무가 달라서 監査室에서 결정되어서 회송해 줄 때 이때에 여러 가지 검토해서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마 당연한 얘기로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물론 건의라고 하는 것이 상사의 입장을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건

의보다도, 내 그 룰은 좀 압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市議會 內務委員會에서 그 전에 민방공 경보 사이렌에 준해서 볼 때 그런 하찮은 문제 가지고 경고까지 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고 이상으로 해야만 된다고 하는, 內務委員會 行政監査 때 얘기가 있었다는 그 정황을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內務局長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게 답변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취급업무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문제는 물론 옳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內務局長으로서 여러 가지 움직이는 사항, 이런 사항, 이런 사항 등등을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內務委員會 질문할 때의 정황을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았을 것을 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단체활동 지원관계인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좋은 얘기를 했어요. 財政法 관계, 또 거기에 대한 施行令, 그리고 보조금지급조례, 이것은 전부 母法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하는 조례가 있다 해서 모든 단체, 개인에게 다 보조를 해 줘요? 그러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각론으로 어떠한 특정인, 특정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이것이 母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아마 우리 공직생활 한 사람들 대개 볼 것 같으면 알 것이에요.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것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市議會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해서 그 전의 母法으로 근거를 둔다라고 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나는 그런 행정선례, 또 행정의 관례 여기에서 내가 아는 대

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연구해서 우리 社會振興課長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도 괜찮고, 보고해도 괜찮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根;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십시오.

金鍾來 委員 질의하십시오.

○金鍾來 委員; 金鍾來 委員입니다.

本委員의 질의는 서면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5년 10월,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整에 關한改正條例案을 우리 서울市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本會議長에서 某 同僚議員이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제안한 同僚議員님께서 그 문제 제기한 부분도 일응 이해가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차후 보완해 나가면서 하자라는 쪽으로 해서 이 改正條例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本委員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책방에 가서 교부금에 관한 책을 죽 훑어 보니까 현재 龍山區廳에 근무하는 유재원 과장이 있어요. 이 유재원 과장이 쓴 책을 보니까 책 내용이 무엇이나 하면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 배분방법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교보문고에서 한 권을 사서 읽어 보니까 나름대로 유과장이 쓴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과장한테 전화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해 봤더니 이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작년에 이 문제가 改正條例案을 넣기 전에 서울市에서는 市政開發研究院한테 용역을 준 줄 알고 있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에서 어떤 내용을 연구를 했느냐 하면 서울시 지방재정 예측과 배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內務委員會에서도 이 市政開發研究院에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다라고 했는데, 또 실질적으로 제가 유재원 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 유재원 과장이 연구한 내용이 더 우리 조례하고 가깝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얘기를 局長님께서 들어보셨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예산을 계획했을 때는 결산액에 의해서 비교평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예산은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결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地方議會的 의결을 거치고 할 때에는 그 예산서를 집행하기 전에 그 후인 7월, 시기적으로 굉장히 지연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산서의 의미가 다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큰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데 그 의미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문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自治區 條例改正案에 보면 결산액에 대비해서 책정항목이나 책정단위, 또 단가 이런 부분이 그것을 기준했기 때문에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액에 비례해서 해야 된다. 이런 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담이 없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재정수요로 책정되어서 과다하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틀리지 않느냐. 또 자치단체별로 내용이나 재정형편이 부분적으

로 예를 들어서 획일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다. 또 이러한 모든 부분이 통계지표를 적용해서 책정단위 및 단가가 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이 유재원 과장이 쓴 책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재원 과장이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런 제반 문제를 어떤 공청회나 토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시 자치구 교부금에 대해서 합당한가 이런 것을 한번 토론회를 거쳐서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제안을 드리고, 또 이렇게 서울시에서 市政開發研究院에다 용역을 줬을 때는 많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개인적인 공무원이나 이런 자연인이 연구했을 때에는 우리 內務局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 이런 부분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공무원이든지 다른 개인이 이러한 어떤 행정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평가를 했을 때에는 정책에 예를 들어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 대신 반영하기 전에는 평가를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內務局에서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을 우리 局長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자치구의 교부금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世根; 질의하실 委員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委員님들이 더 안 계시니까 內務局長께서는 車星煥 委員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內務局長 李相鎭; 조금…….

○車星煥 委員; 해 주세요.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인데, 局長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委員長 吳世根;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죠.

○內務局長 李相鎭; 첫번째로 일선기관의 변동되는 인력감축 이것에 의해서 인력이 재배치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이 문제는 車委員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등록 전산화, 기타 OA시스템으로 행정사무기기가 자동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로 해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企劃管理室 市政開發擔當官室 組織管理係에서 지금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저희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구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각종 직능단체 예산이 어떤 행정지원계획과 결부되어서 자치구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이런 것이 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직능단체 활동도 진짜 필요한 그런 면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國會에서 자원봉사법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될지 아니면 다음회기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회 직능단체 활동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거기 회원으로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와의 굉장히 깊은 연계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 전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을 전부 등록을 받도록 立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회단체 직능단체도 거의 다 파악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것과 결부되어서 일단 전부 뭉가는 오픈된 단체가 현황이 나와야 되지 않

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관계는 지방자치와도 깊은 관계가 있어서 하여간 앞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행정체제로 전환이 되는 이런 문제와도 또 연계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활성화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와 유기적인 연락도 필요하고 또 협조 지도해서 시민위주의 행정인 되는 자율적인 그런 단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원하는 그런 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局長님 좀 초점이 다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율성을 부여해서 행정손실을 막자는 그쪽에 지금 취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 단체들을 거의 관장하다시피 해서 그 회원 모집에서부터, 초청장 만드는 일에서부터 초청장 발송하는 일, 전화 연락하는 일, 회의 참석하는 일, 회의 참석해서 내용까지 또는 외부행사까지 그런 일을 직원들이 담당이 다 있어가지고 관여를 하다 보니까 행정 인력의 낭비가 심하다 이거죠. 그런 낭비를 제하고 그런 데 신경 쓸 행정인력을 교통문제랄까 환경문제랄까 또는 사회복지랄까 주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돌리자 이거죠.

○內務局長 李相鎭; 네, 알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하자 이거죠. 그 방면에 있어서 그 단체들에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행정 영향력만 발휘하고 나머지 행정손실을 막자.

○內局長 李相鎭;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번째, 自治區에서 승진한 사람을 그 區에 다시 근무하게 한다는 이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車委員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

향으로 해 가지고 위계도 좀 살리고 효율성도 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냥 이권부서, 기획부서, 그래서 이권부서라고 그러면 인허가부서, 시민 어떤 허가를 내준다든지 해 가지고 전에 과거적으로 봐 가지고 나왔던 어떤 부조리가 있고 금품이 왔다 갔다 하는 이권이 있는 이런 데 어떤 그런 데를 대개 뭐 그냥 지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획부서는 대민업무가 별로없이 사업계획을 한다든지 내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무부서는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대개 지금 현재 일거리가 많은 데고, 비격무부서는 대개 사업소나 뭐 이런 데. 요새는 이상하게도 이 기획부서나 비격무부서를 선호하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체험담, 애로, 비리유발 이것을 室·局에서 좀 책을 발간해서 후임자한테,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각 부서별로 저희가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문 관계는 이따가 行政課長이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표창, 구청장 표창관계는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거나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 표창은 구청장이 우수한 직원이 있을 때, 저희가 이것은 인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區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표창을 내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 표창은 구청 자체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 표창을 몇 명을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관별로 저희

가 이것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으로 좀 저희가 권장을 해서 자율적으로 좀 균형에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그런데 그게요 직원대비 몇 % 그렇게 좀. 물론 딱은 맞출 수는 없겠습니만 직원이 1,000명이라 했을 때 시장 표창은 50명이 나간다, 그렇게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동일한 경우에 어느 한 구청은 직원이 1,000명인데 시장 표창이 100명이 나가고 어느 한 구청은 50명이 나가고, 물론 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형평성이 이게 구청장이나 總務局長님들이 自治區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많이 받는 것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 本廳에서 약간 컨트롤 해 줄 필요가 있다는.....

○內務局長 李相鎭; 지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車委員님. 뭐냐 하면 기획표창하고 일반 수시표창이 있는데요 기획표창은 아까 조례로 돼 있는 서울시민대상,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시민상, 그 다음에 숨은 일꾼상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는 조례에 의해서 인원이 딱 100명,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별로 안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기획표창은 저희가 연말 무슨 표창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이 완료됐을 때에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관별로 딱딱 몇 명씩 안배를 해서 주는 게 있고, 그러나 그것 말고 수시표창 각 기관에서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機關長들이 이렇게 올리게 되면 심사를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간 車委員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좀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개통과 관련해서 초청인사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초청인사가 빠짐없이 또 고루 이렇게 되도록 유의해서 의전절차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전에 서울신문 판매관계, 行政課長이 양해하신다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世根; 그 문제는 양해 좀 해 주세요. 상세하게 알으시려면 다음에 자료로 답변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어때요, 답변 간단합니까, 간단해요?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自治行政課長 朴成重; 먼저 서울신문 구독관계 일반적인 총괄업무는 公報官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은 區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區廳에서 직접 받은 자료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公報官室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아마 委員님한테 통보된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는, 우리가 公報官室로 받은 자료에 95년도의 경우 中區의 경우는 통장이 371명, 반장이 1,617명 해서 1,988명에게 배부를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96년의 경우는 통장이 333명, 반장이 1,625명 해서 1,958명한테 배부했다 이렇게 해서 한 30명 줄은 걸로 되었는데 그 쪽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하고.

두번째는 中浪區廳의 경우 통장이 579명, 95년도에 반장이 2,598명 해서 총 3,177명한테 제공했다 이렇게 돼 있고, 96년의 경우에는 통장이 579명, 반장이 2,598명 해서 똑같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委員님들한테 추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世根; 질의하실 委員 더 안 계시죠?

더 이상의 질의 신청이 없으므로 內務局 行政事務監査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行政事務監査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시민 위주의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內務局에 대한 1996년도 行政事務監査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에는 體育施設管理事業所 소관 行政事務監査를 시작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2時 39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

吳世根 金在京 金明坤 金永俊
金在仁 金種求 金鍾來 金玉源
呂鼎九 鄭海純 車星煥 高光哲
成聖鏞 崔光雄 慶奎福

○專門委員

鄭文孝

○被監査機關參席者

內務局

局長 李相鎭

自治行政課長 朴成重

.....
(書面質疑書)

(뒤에 실음)

.....